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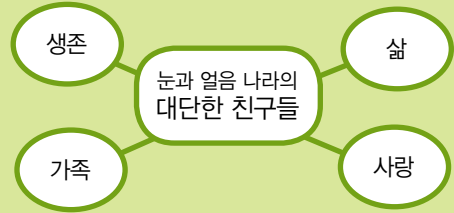
눈과 얼음 나라의 대단한 친구들

비비 뒤문 탁 글 | 이수영 그림
웅진주니어 | 11,000원 | 152쪽 | 초등 고학년
교안 개발 : 김혜숙

책 소개

눈과 얼음의 땅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동물들의 삶의 이야기를 문학과 감성을 담아 흥미로운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거친 땅에서 묵묵히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삶을 이어가는 여러 생명체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집니다

독후활동 주제망



독후활동 시작하기 지구의 아버지와 어머니, 북극과 남극



- ① 대단한 동물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북극과 남극의 이야기를 읽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써 보세요.

북극과 남극은 지구의 머리 꼭대기와 발끝에서 세상을 ()로 꼭 () 준다. 북극과 남극이 없었다면 우리는 저 먼 ()로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북극은 영어로 '아크틱(Arctic)'이라고 한다. '아르크토스(Arktos)'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곰'을 뜻한다. 북쪽 하늘에서 언제나 환하게 빛나는 ()와 ()의 별자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쪽 하늘에서는 두 별자리를 볼 수 없다. 그래서 남극은 '곰의 ()'이라는 뜻으로 영어로 '엔타크틱(Antarctic)'이라고 한다.

한편 여름에 거대한 얼음덩어리의 일부가 녹아내리면 북극의 크기는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북극의 실제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어렵다. 또 북극은 ()에 떠 있어서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도 한다. 반면에 남극은 유럽 대륙보다 조금 더 크고, 날씨는 북극보다 훨씬 더 춥다. 왜냐하면 얼음이 두껍게 쌓인 곳 바로 아래층이 ()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야. 지금까지 관측된 남극의 최저 기온은 1983년에 관측된 기온으로 무려 영하 89.2도이다. 하지만 북극은 얼음덩어리 아래층이 돌이 아니고 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겨울에도 남극만큼 춥지 않다.

남극에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 때문이다. 그곳에는 오직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과학자들뿐이다. 반면에 북극에는 ()가 살고 있다. 에스키모는 남극의 극심한 추위는 견디지 못하지만, 영하 40도 정도의 날씨에선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기』 하나 우주 큰곰자리 작은곰자리 맞은편 붙들어 물 돌 추위 에스키모

독후활동 주제 1 북극과 남극

1. 북극은 쫘쫘 얼어붙은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바다를 육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극은 육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주위를 바다가 에워싸고 있지요. 그렇다면 북극과 남극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세계지도를 참고하여 북극과 남극을 그리고, 북극과 남극의 주변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해역과 여러 나라의 위치와 이름을 각각 써 보세요.



북극



남극

2. 다음 물음에 알맞은 답을 해 보세요.

- (1) 모두가 각각 다른 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늑대는 개의 아주 오래된 조상이다. (O, X) ⇨
- (2) 마치 ‘털 몽치를 두른 슈퍼 모델’ 같은 순록은 세상에서 가장 긴 털을 달고 있어서 혹독한 추위에도 끄떡없다. (O, X) ⇨
- (3) 일각돌고래의 머리에 빨처럼 길게 자란 이빨은 신경 섬유 다발이 들어 있는 감지기이다. (O, X) ⇨
- (4) 북극에서 대부분 얼음덩어리 밑에서 생활하는 ‘그린란드고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보유한 동물이에요. 이 동물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 ① 거대한 크기에 비해 가장 수명이 짧은 동물이다.
 - ② 가장 지방층이 두껍고 가장 머리가 크다.
 - ③ 주둥이도 가장 크고 수염도 가장 길다.
 - ④ 긴 수염은 우산과 크리놀린의 재료가 된다.
- (5) 가축이 되기에는 너무 까다로운 말코손바닥사슴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물속 식물의 뿌리와 잎을 좋아해 먹이 구하기가 비교적 쉽다.
 - ② 세상에서 가장 큰 사슴이다.
 - ③ 털이 두툼해서 영하 5도의 눈 속에서도 몸은 덥다.
 - ④ 길쭉한 다리 위로 몸이 우뚝 솟은 모습이다.
- (6) ‘북극권 주변 해변의 약탈자’라 불리는 울버린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고독을 좋아한다.
 - ② 고양이과에 속한다.
 - ③ 수영을 하고 나무에 오르는 등 노련하고 영리하다.
 - ④ 번식은 수컷이 결정한다.
- (7) 북극에 사는 동물 중 가장 신비로운 모습을 한 흰울빼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 ① 머리가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사방을 철통같이 지킬 수 있다.
 - ② 쥐와 레밍을 잡아먹는다.
 - ③ 새하얀 깃털과 자동차 불빛처럼 노란색의 눈을 가졌다.
 - ④ 가장 얇은 깃털을 지니고 있다.
- (8) ‘바닷속 진공청소기’라 불리는 바다코끼리의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 ① 몸무게는 1톤이 넘지만 하루 10킬로그램 미만의 먹이만을 섭취한다.
 - ② 송곳니를 제외한 이빨은 모두 사라져, 다 자랐을 때는 먹이를 씹을 수가 없다.
 - ③ 수영 속도가 빨라 조개까지 먹을 수 있다.
 - ④ 송곳니는 ‘피켈’처럼 쓰여 얼음을 찌거나 얼음 위를 다닐 때 사용한다.

독후활동 주제 2 나는 어떤 동물일까

다음 그림을 보고 그림에 알맞은 동물의 이름을 각각 써 보세요.



1. 마라톤 선수 같은 극제비갈매기의 노력으로 치자면 단연 세계 챔피언이에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
2. 8개월 동안 혼수상태에 빠진 것처럼 깊은 겨울잠을 자는 북극땅다람쥐는 아주 특별하고 근사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재주란 무엇인가요? ⇨
3. 자연이 '만물의 어머니'라고 불리긴 하지만 천사가 아닌 흉악한 괴물의 모습일 때도 많아요. 레오파드 바다표범의 습성을 보면 그 해답을 알 수 있어요. 레오파드바다표범을 두고 '잔인한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남극이빨고기는 수온이 영하 2도인 바다에 사는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는 150킬로그램의 거대한 몸으로 바닷속을 천천히 누비고 다니지만 결코 어는 일은 없어요. 이처럼 남극이빨고기가 차가운 물속에서도 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5. 레밍은 북유럽의 북부 지역에 사는 설치류의 한 종류로 '나그네쥐'라고도 해요. 레밍의 수명은 약 2년 정도이지만 아주 열정적이어서 번식 속도가 빛보다 빠를 정도예요. 레밍이 많이 태어난 해에는 포식 동물들도 새끼를 많이 낳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

독후활동 주제 3 눈과 얼음 나라의 대단한 친구들

1. 지금까지 배웠던 동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은 어떤 동물이었나요?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동물을 선택해서 그 동물의 특징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세요.

『예시』

동물 이름 : 순록

순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립식 가구 회사도 부러워할 만큼 완벽하게 설계된 훌륭한 조립식 몸의 구조를 가진 동물이다.

1. **발굽:** 양쪽으로 갈라져서 눈 위를 걸을 때 미끄러지거나 눈에 잘 빠지지 않는다.
2. **발굽의 모서리:** 칼날처럼 날카로워 눈 속을 파헤치기 좋다.
3. **온몸:** 무겁고 복슬복슬한 이중 털로 덮여 있어 강추위도 견딜 수 있다.
4. **콧구멍:** 콧구멍 크기를 조절하는 기술이 있다.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면 콧구멍이 넓어져 폐가 신선한 공기를 흠뻑 빨아들여도 몸속이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고, 숨을 내쉴 때는 콧구멍이 좁혀져서 온기는 잡아두고 찬 공기만 밖으로 내보내 순록의 코에서는 절대 따뜻한 콧김이 나오지 않는다.
5. **뿔:** 암컷과 수컷 모두에게 멋진 뿔이 있다. 수컷은 힘겨루기를 할 때 사용하고 짝짓기가 끝나면 뿔을 벗어버린다.

♥ 그렇지만 1% 부족한 것이 있다!

무릎 관절이 혈렁한 탓인지, 걸을 때 ‘덜컹덜컹’거리는 소리가 난다.



2. 《눈과 얼음 나라의 대단한 친구들》은 북극과 남극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동물들의 삶, 가족, 사랑, 생존 방식 등 치열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도 황제펭귄의 강한 끈기와 인내심은 실로 놀랍고, 남방코끼리바다표범은 어쩔 수 없이 서로를 평생 죽지 않을 만큼 싸워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눈과 얼음뿐인 침묵의 땅에서 소리 없이 치열한 삶을 이어가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점을 느꼈나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제목과 연관 지어 서술해 보세요.



● 눈과 얼음 나라 여행자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

극제비갈매기 열한 마리의 다리에 전파 송신기를 매단 사람은 ‘카르스텐 에게방’이라는 덴마크 생물학자였어요. 또한 크릴을 연구한 사람은 ‘우베 킬스’라는 독일 학자였어요. ‘눈과 얼음의 나라’라는 극한 환경에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동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없었다면 지구의 한 부분을 함께 차지하고 살아가는 동물들의 삶을 우리는 결코 알지 못했을 거예요. 또 사진작가 폴 니클렌의 체험담도 있어요.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 등을 참고해서, 레오파드 바다표범을 친구로 생각해서 먹이를 물어다 준 사진작가 폴 니클렌 (Paul Nicklen)의 체험담을 읽어 보세요.



폴 니클렌 (Paul Nicklen)